

47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

이 나 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

이 나 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01

## 들어가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지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시작되었고, 이후 여성들의 참정권과 노동권은 물론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인 1985년 3월 8일,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부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대회'(대회장 이우정)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대회에 참여한 13개 여성단체는 "민족민주운동을 전개한 근우회를 이어받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전기를 마련한다"고 천명했다.

〈근우회〉가 일제 강점기 여성단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후 1985년까지 한국의 여성운동은 부재했는가. 여성운동은 서구 여성운동만을 참조점 삼아 발전해 왔는가. 이 글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나마 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이 단순히 서구 여성의 것이 아니며, 오늘날 뜨거운 페미니즘의 열기가 급작스럽게 등장한 것도 아님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물결론'(Wave)으로 대변되는 서구 운동사에 비견해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것이고 시기구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여전하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거칠게 구분하자면, 탈식민과 민족해방을 기치로 내건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시기를 1차로 보고, 한국전쟁부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까지를 2차,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열기 가운데 태동한 진보여성운동의 성장과 발전이 3차,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페미니즘을 4차로 볼 수 있다. 서구와 달리 한국의 여성운동은 국권침탈과 식민지로 인해 동등참여의 핵심인 참정권 운동을 결여했고, 반제국주의와 민주화라는 거대한 물결 하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혁과 문화적·사회적 변혁을 동시에 추구한 독특한 여정을 걷게 된다. 탈식민지 운동과 사회주의적 계급투쟁, 가부장제의 전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젠더가 섹슈얼리티, 계급, 민족 문제와 별개일 수 없음을 '이미' 인지하면서 성장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독립운동과 탈식민운동, 반독재·민주화 운동의 '부분운동'이거나 남성운동 조직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앞장서 바꾼 주체였음을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누가 여성운동의 역사를 무시하고 지우고 폄하하고 배격해 왔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격문이기도 하다.

백여 년이 넘는 운동사를 한 번에 기술하기도 어렵거니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운동의 전체상을 흐릿하게 조망함을 미리 양해 구하며 글을 시작한다. 필자의 파편화된 지식과 부분적 관점의 소산임도 강조하고자 한다.

## 02

## ‘인간’이 되고져, 해방된 민족의 여성이 되고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 사는 양반집 여성들과 기생, 서민층 여성 등 300여명이 〈여권통문〉을 발표한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임을 자각하고,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주장하며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밝힌 〈여권통문〉은 여성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최초의 ‘성평등 선언문’이었다. 이 내용은 9월 8일 〈황성신문〉과 9월 9일 〈독립신문〉에 기사로 실리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이 상하면 반드시 변하고, 병이 극하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고금의 이치다. (중략) 이제 우리 이천 만 동포형제가 (중략) 구습을 영영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좇아 행하는데, 일신우일신 함은 영영한 소아라도 저마다 아는 바거늘,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일향 귀 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옛날식 규방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혹시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이의 벌어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십규에 처하여 그 절제만 받으리오.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제조를 다 배우고 이목을 넓혀 장성한 뒤에는 사나이와 부부지의를 정하여 평생을 사는데, 그 사나이한테 조금도 절제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극히 공경함을 받는다.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전날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고, 구설을 핑계로 여자는 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밥하고 옷 짓는 것만 하리오. 어찌하여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사람으로 규방에 갇혀 밥과 술만 지으리오.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실시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 재주를 배우고, 규칙과 행세하는 도리를 배워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게 할 당장 여학교를 실시하오니 우리 동포 형제 여러 부녀 중 영웅 호걸님네들은 각각 분발한 마음을 내어 우리 학교 회원에 드시려거든 곧 칙명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sup>1)</sup>

남녀평등 사상을 전반에 깔고, 평등한 교육기회의 필요성과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1) 옛 한글표기는 현재 한글표기로 고쳤음. 이하 동일.

선언은 근대여성운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이라는 학문체계를 세운 이화여대 이효재 교수는 이를 ‘신분차별을 타파하려는 근대적 여성들의 의지’로 크게 평가한 바 있다. 이들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원단체로 <찬양회>를 조직했다. <찬양회> 회원들은 1898년 9월 20일, 관립여학교 개설을 촉구하기 위해 고종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리기도 한다.

“신첩 등이 찬양회를 실시하와 충성충(忠) 사랑애(愛) 두 글자를 규중으로부터 온 나라가 흥왕케 하려 하오나 학교가 아니면 총혜한 계집아이들을 가르칠 도리가 없사오니 감히 아뢰오니 었디어 빌건대 성명을 깊이 통촉하옵소서. 학부에 칙령을 내리사 특별히 여학교를 세워 어린 계집아이들로 하여금 학업을 닦게 하여 대한제국도 동양의 문명지국이 되옵고 각국과 평등의 대접을 받게 하옵기를 었디어 바라옵나이다.”

비록 관립여학교 설립은 불발했지만 순성여학교를 설립·운영했고, 이후 국권침탈 이전까지 상당수의 여학교가 설립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주지하듯 조선의 국권은 일제의 야욕에 의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이후 여성운동은 애국계몽운동, 구국운동, 반외세·반봉건 운동, 독립운동으로 변화해 갔다. 여성들은 직접 의병 활동에 참가하거나 독립투쟁에 헌신하면서 노동자생존투쟁과 여성해방 투쟁을 동시에 주도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성장한 여성들이 <근우회>의 주축이 되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근우회(槿友會)>는 1927년 조선의 여성운동가들이 좌우 이념을 넘어 설립한 전국조직의 여성단체였다. 박차정, 정철성, 허정숙, 김활란, 고헌경, 박순천 등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에 60개가 넘는 지회를 설립했고, 강연회·토론회·야유회·체육대회·강습회·음악회·야학 등 대중운동을 두루 수행했다고 한다. 설립 취지를 보면, 근우회는 대중적이며 ‘전체’ 운동을 지향하는 운동조직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이라는 과제를 전제로 하되,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여성해방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운동이 부분적이며 분산적 운동임에 비하여 여성의 대중적 참가를 목표로 출현한 근우회의 사명은 전 조선여성을 과거 역사적 모든 질곡에서 해방하여 줄 열쇠이며 조선여성을 사회적 의식에 각성하여 전체적 운동으로 인도하여 줄 거화(炬火)이다. (...) 이 여성의 성별적 조직 즉 성적 차별문제 등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체를 통(通)치 않으면 결국 여성의 대중을 실제상 사회적 의식의 각성과 그 조직을 가지게 할 수 없는 것이 현하 조선여성운동의 사회적 조건이다. 이에서 근우회는 원시적이며 자연생장적인 여성계몽운동을 표어로 한 조직체로서 현 사회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sup>2)</sup>

2) <근우회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업무> 《근우》 창간호, 1929년 5월 중에서.

봉건 가부장 질서와 식민지 착취구조가 착종된 시대에 나온 <근우회 행동 강령>은 21세기 현(現)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봐도 선진적이다. 민족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이 심각한 당대의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일체의 차별 철폐’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되 복합적인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혁하고자 한 여성들의 통찰력과 실천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당시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가들의 고민이 농민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임금차별 철폐, 산전산후 임금 지불, 부인 및 소년공의 인권보호 등 노동과 계급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신매매와 공창제 등 성적 착취 구조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 3·8 세계 여성 대회에서 <근우회>가 상기된 이유다.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인 일체의 차별을 철폐한다.
2. 일체의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을 타파한다.
3. 조혼을 폐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확립한다.
4. 인신매매 및 공창(公娼)을 폐지한다.
5.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한다.
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산전 및 산후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7.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 노동 및 야근을 폐지한다.<sup>3)</sup>

기독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내부적 갈등에도 활동을 이어가던 <근우회>는 결국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해소된다. 그럼에도 당시 상당수의 여성들은 식민지 시기는 물론 해방 정국에서 핵심역할을 하면서 함께 연대해 공창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1945년 일제가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미군정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부녀자매매 또는 매매계약금지>를 공포했지만(1946년 5월), 실상은 부녀자(인신)매매만 명목상 금지했을 뿐 공창제도는 폐지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폐업공창구제연맹>(1946년 8월 14일 결성. 이후 19개로 늘어남)을 결성해 공창제 폐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한다. 이들은 공창제를 ‘남성중심의 폭력행위이자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조를 일개 물품시하는 노예시장”이므로, “인도, 정의” 상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유곽 폐지, 알선자 처벌과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 물론 일부 기독교 계열 여성들은 여전히 공창을 ‘일부일처의 대륜과 가정화락을 파괴’하는 것이자 ‘자녀교육’상 문제라고 보아, 도덕주의와 가정보호 관점을 견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당수는 공창제도를 ‘봉건가부장적 관습이자 식민지 체제’가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이자 여성인권엔 반하는 문제라고 보았으며, 성구매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쌍벌죄를 주장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봐도 진보적이라 평가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해방 후 좌우 대결이 극심한 한반도 정국을 고려할 때 좌우익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하나의 목표를 위해

3) <동아일보>, 1929년 7월 25일.

운동을 벌였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성들의 가열찬 저항의 결과, 마침내 미군정은 1947년 11월 14일 <공창제도등폐지령>을 공포하고(1948년 2월 14일 효력 발생), 매춘 전면 금지(쌍벌제, 매개자, 알선자 등 제3자 처벌)를 천명한다. 물론 공창은 폐지되었으나 유곽지역은 잔존했고 사창은 창궐했으며, 미군은 일제의 유곽시설을 활용하거나 미군클럽을 만들어 군인의 성매매를 묵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는 이후 한국사회 기지촌 성매매의 원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명목상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했으되, 국가규제주의 혹은 합법화와 유사한 현실이 지속되는 하나의 배경을 제공했다.

## 03

## 암흑기에도 새벽을 만들다!

근대 초기 싹뻗던 독자적 여성운동의 역사는 전쟁과 분단, 군사독재체제를 거치며 단절되었고, 다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엄혹한 시기에도 여성들은 숨죽이되 죽어있지 않았고, 때론 적극적으로 나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호주제 폐지로 대표되는 가족법 개정 운동(1953-2005년)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으며(동일방직 나체시위(1976년 7월), 동일방직 똥물사건(1978년 2월), YH 사건(1979년 8월)과 노동자 김경숙 추락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교회연)가 주도한 기생관광반대 운동(1973년)이 있었다.<sup>4)</sup>

특히 1967년 창립된 교회연은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과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지원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민주 인사들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제평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일본에서 귀환한 원폭 피해자들의 참혹한 생활을 한일 양국에 알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꾸준히 해왔다.<sup>5)</sup> 사실상 진보운동조직이 살아남기 힘든 유신정권 하에서도 교회연은 일곱 개 개신교 교단을 회원으로 하고 세계 교회여성과 연대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다른 어떤 여성단체보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었고, 조직적이었으며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컸다고 볼 수 있다.

교회연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외화 획득을 위해 한국정부에 의해 장려된 일본인 섹스관광-일명, 기생 관광-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기생 관광추방운동’을 전개한 유일한 단체이기도 했다. 당시 대한민국은 「윤락행위방지법」(이하 윤방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특수 관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상대 성매매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윤방법의 적용을 보류했다.<sup>6)</sup> 1971년에는 「관광사업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한국식 요정”을 관광휴양업에 추가했고,<sup>7)</sup> 1973년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는 “관광호텔, 요정, 식당의接客요원을 대상으로 연 4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가질 것”을 명시했다.

4) 이 장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1953년 형법 제정시 ‘간통죄 쌍벌죄 도입’을 위해 힘을 모은 여성들의 역사가 있다.

5) 이호재. 199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 과정」,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편, 한울아카데미, 181~238쪽.

6) 이하영·이나영, 2015. 「기생 관광-발전국가와 젠더, 포스트식민 조우」, 『페미니즘연구』 제15권 2호, 159~203쪽.

7) 관광요정이 관광사업 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1981년 11월에 이르러서였다(동아일보, 1981년 11월 19일).

---

또 국제관광협회(현, 한국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하여 ‘관광기생’에게接客원 증명서를<sup>8)</sup> 발급하고 일 년에 두 차례의 교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실제 1971년 국제관광공사 총재로 취임한 안동준은 “관광 진흥의 묘안”으로 “의식(衣食)과 주(酒), 그리고 여자”, 곧 “기생”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1973년 7월, 교회연의 대표였던 이우정 교수는 한일교회협의회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여성연대로 일본인 섹스 관광과 성매매 여성 인권유린 실태 조사가 진행되었고, 양국 정부에 항의서가 전달되었으며,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촉발되었다. 교회연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 교풍회 여성들은 기생관광의 실태를 눈으로 보게 되고 문제의식을 일본 여성들과 공유하였으며, 한국의 운동을 외국에서 지원했다. 이때 이루어진 한일 여성들의 연대는 이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연의 지속되는 정부 규탄 시위와 여론화는 유신과업 수행을 가로막는 ‘반정부 행위’로 간주되어 당국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게 되고, 마침내 이우정 대표가 연행되어 고문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운동은 서서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sup>9)</sup> 그럼에도 교회연은 인권, 여성, 사회, 노동, 환경, 평화통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보적 의식과 운동 경험을 축적하면서 독자적 여성운동 조직으로 살아남아, 1980년대 본격화된 진보여성운동의 태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 동력으로 기능했다.

---

8) 경향신문(1972년 10월 4일)은 ‘외국 관광객 상대 말썬 빚은 ‘接客 등록증’이라는 제목 하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接客여성(속칭 관광기생)들에게 ‘관광종사원등록증’을 발급,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接客여성들에게 등록공인된 윤락녀라는 인상을 줘 큰 말썬을 빚고 있다. (...) 이같은 조치가 실시되자 대부분의接客여성들이 관광객接客을 보이콧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요정에서 2시간씩 대기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말썬이 잇달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9) 민경자. 1999.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역사학회 편, 한울아카데미, 239~299쪽.

## 04

## 마침내 진보여성운동의 새 역사를 만들다!

암흑기에도 빛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내며 전진하던 한국의 여성운동은 1980년 중반 민주화운동 시기에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의 급진성과 추진력을 체현한 진보여성운동은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며 수많은 법적·제도적 성과를 달성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인식론이자 학문으로서 페미니즘의 성장이 운동의 언어와 인적·물적 자원 제공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다. 1977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된 이후, 1984년 여성학이 분과학문임을 선언한 한국여성학회 창립, 각 대학에 교양여성학 강좌 개설, 학위과정 확립 등을 거쳐 1990년대에 독립적 분과학문으로서 여성학 성립과 타 분과 학문으로 페미니즘 확산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여성인권운동의 선구자이자 ‘분단사회학’의 효시인 이효재는 1970년대 당시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여성자원개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분단체제 및 유신독재체제와 연관된다고 보고, 성차별과 군사독재, 계급문제를 연결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이후 여성학 교과과정의 주요한 모형을 제공하게 된다.<sup>10)</sup>

그는 여성학강좌 개설, 여성학과 설립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회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여성평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본인 스스로 학문과 운동을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남성중심적 학문과 세계관에 저항하는 인식론이자 사회변혁운동으로서 한국 페미니즘의 과제를 제시하고 정착시킨 핵심인물이었다.

페미니즘의 발전과 함께한 한국의 여성운동은 진보사회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점차 독자적 ‘여성문제’에 천착하며 성장한다. 분단 극복과 민주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적 편견과 성차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당시 여성들은 <여성평우회>를 조직한다. <여성평우회>는 1983년 6월 18일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목표 이념으로 내걸고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의 개혁, 남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 건설, 민주통일사회 건설’을 활동지침 삼아 창립하였다. 분단 이후 진행된 여성운동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정치적인 문제와 결합해 운동의 목표와 실천 지침을 제시한

10) 이나영. 2011.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 미완의 제도화와 기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27권 4호, 37-82쪽

최초의 단체이기도 하다.<sup>11)</sup> 〈여성평우회〉는 당시 이중삼중의 억압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에 주목해 조기정년제 철폐운동, 결혼퇴직제 반대운동 등을 펴며 변혁적 여성운동을 전개했으나, 개량주의 논쟁에 휘말려 1987년 해산된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한국에서 최초로 가족 내 여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도입과 쉼터를 개설한 〈한국여성의전화〉(1983년),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고자 한 〈기독교민회〉(1986년)가 창립되는 등 독자적 여성단체가 생겨나면서 후일 〈여성평우회〉는 여성 대중운동의 시초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여성평우회〉의 창립 멤버들은(이효재, 한명숙, 최영희, 김상희, 이경숙, 이미경 등) 보다 확장된 대중 여성운동을 고민하면서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결성하고 이효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다.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이 사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에 있으며 그 위에서 경쟁위주, 물질위주의 비인간적 사회가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다.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포함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창립 선언문에서 보듯, 〈한국여성민우회〉는 민주화 운동의 역량을 사무직 여성노동자와 주부 등 여성대중으로 확대해 개인과 사회변혁을 동시에 꾀하였다.

1986년 ‘성고문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KBS시청료거부여성연합’ 등의 활동을 통해 연대 역량을 축적해 온 여성단체들은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결성한다. 21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연〉은 “민족 자주화와 민주화, 생존권 회복, 남녀평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천명하며 초대 회장으로 이우정을, 상임 부회장으로 이미경을 추대한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이효재는 1990년 〈여연〉 회장이 된다.<sup>12)</sup> 이들 단체들은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 이로 인한 피해자 살해사건 및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사건 등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명명하고 지원하면서 가해자 처벌을 현실화하고자 법제화 운동과 문화변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된다.

기억해야 할 점은 한국의 ‘미투운동’이 사실상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시작은 1986년 6월 (7월 고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7월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권인숙을 “급진 좌파사상에 물들고 성적도 불량한 가출자일 뿐”이라고 매도했고,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며 여론을 호도했다. 이에 격분한 진보 진영의 여성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진보진영 남성들과 공유되기 어려운 독자적 여성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여성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독자적 여성조직을 고민하게 된다. 〈한국여성의전화〉(1983년), 〈한국여성단체연합〉(1987년), 〈한국여성민우회〉(1987년), 〈한국여성노동자회〉

11)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과 여성평우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blog/dictation/post/617>

12) 여연 창립 배경 및 초기 활동 관련 내용은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10년사』를 참고할 것.

---

(1987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한소리회>(1987년),<sup>13)</sup> <한국성폭력상담소>(1991년) 등의 성립과 성장 배경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후 이들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의제가 되었는데, 1991년 1월,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살해한 일명, '김부남 사건', 1991년 8월, 전 세계를 뒤흔든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성노예제 고발, 1992년 1월, 계부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함께 계부를 살해한 일명 '김영오 사건(김보은, 김진관 사건)', 1992년 10월,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 '윤금이 사건', 1993년, 조교에 대한 성희롱으로 공론화된 '서울대 신고수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면서 피해자와 개별 단체들과 연대하던 진보여성 단체들은 마침내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4월 시행), 1997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8년 7월 1일 실시) 등 큰 성과를 이뤄내게 된다. 1998년 12월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차별금지와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이 최초로 명시되도록 했으며, 1999년 7월 1일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성희롱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면서 성차별의 일환으로 보게 한 결정적 계기도 마련한다. 이 같은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는 '정조에 관한 죄'가 성폭력이 되었고, '여자와 복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맞이라던' 관습은 가정폭력으로 명명되었다.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성적 괴롭힘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페미니즘의 발전과 함께 한 한국 진보여성운동의 성장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의 주요한 연료이자 동력이 되었다. 1990년 11월 1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정신대 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7개 여성운동단체들과 다양한 시민, 종교, 학생 단체들이 참여해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사실상 이상의 여성운동 조직의 핵심 자원이 주축이 되었다(이효재, 이미경, 지은희 등). 식민지 민족차별과 계급문제, 성차별에 대한 복합적 인지를 바탕으로 태동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은 사실상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인식변화와 구조변혁을 추동한 한국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성장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배경에는 국제 여성운동 및 글로벌 페미니즘의 성장도 맞물려 있다.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젠더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마침 민주화 운동 이후 변화하던 한국 사회는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기치 아래

13) <한소리회>는 <두레방>, <막달레나의 집> 등 성매매 관련 여성 지원/운동 단체들 간 연대체다.

정부 정책과 페미니스트 진영 간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때 채택된 행동강령에서 제기된 폭력의 정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주목할 점은 세 번째 행동강령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성매매 관광'이 포함된 데는 한국여성운동 단체들의 꾸준한 활동과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 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아내구타, 성적 학대, 여아 낙태, 근친강간, 생식기-음핵 절단, 음부 봉합 등)
- ②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강간, 성희롱, 성적 위협,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포르노, 음란전화, 성기노출, 황산 테러, 지참금, 지참금 살인, 신부 화장, 아내 순사(殉死), 전족,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등).
- ③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일본군 '위안부', 성매매 관광, 군대 성매매 등).
- ④ 무력 분쟁 하에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살상,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임신, 집단학살).
- ⑤ 임신 관련 폭력(강제 불임, 강제 낙태, 피임제의 강제 사용, 여아 및 영아 살해, 태아 감별 살해).
- ⑥ 특수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소수민족, 토착민, 난민, 이주자, 장애 여성, 노인 여성, 감금되어 있는 여성,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해 여성의 몸과 성이 활용되고 통제되는 방식에 문제제기해 온 페미니스트들은 2000년 이후 특히 성매매 집결지에 연달아 일어난 화재사건을 의제화하면서 반성매매 운동을 재점화하게 된다. '재점화'인 이유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매매 현장 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소리회 활동이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천시'되고 낙인화되었던 영역과 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제정 운동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운동 자체에 상당한 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의미다. 실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사건, 2001년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사건,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사건을 접하면서 노동계와 광범위하게 연대한 '여성계'는 공대위를 결성했고,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적폭력 이자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성매매에 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집합적 운동을 통한 사회적 공명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하, 성특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성특법의 가장 큰 의의는 '윤락행위등방지법'(1961년 제정)에서 40여 년간 사용되었던 '윤락(윤리적으로 스스로 타락한 여성을 주로 지칭)'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를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채택하고, '윤락여성'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 지었으며, 성매매를 3자 구도로 설정함으로써 구매자와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

무엇보다 성매매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과 불평등과 연결된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피해자 지원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성들의 운동은 법률제정을 넘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립(2004)으로 이어졌으며, 당사자 조직인 <뭉치> 결성에도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이들은 자발/강제의 이분법, 성착취의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모순 등, 현행 성특법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하며 법 제·개정 운동뿐 아니라 현장 여성들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 05

## ‘새로운’ 페미니즘의 창(窓)을 열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장으로 잠깐 주춤하던 한국의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은 2010년대 중반 다시 변곡점을 맞았다.<sup>14)</sup>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이다. 20대 여성이 강남역 부근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자, 여성들은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살인’이라 명명하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메시지를 통해 “강남역 10번 출구, 국화꽃 한 송이와 쪽지 한 장”, “살女 주세요, 살아 男았다” 등 몇 가지 문구가 급격히 번지기 시작했고, 강남역 지하철 10번 출구는 꽃과 인형들, 각종 추모 물품들, 벽을 온통 뒤덮은 수많은 포스트잇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이후 새롭게 각성한 ‘젊은’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며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이후 진행된 ‘미투(#MeToo) 운동’이 있다. 미국에서는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가 수십 년 간 배우, 영화사 직원, 모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뉴욕 타임즈 보도(2017년 10월 5일)가 촉발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 시간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밝힌 것이 분기점이 되었다. 당시 인터뷰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는 사건을 뒤늦게 알린 이유를 밝히면서,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권력의 상층부에 있다고 여겨지는 고위직 검사마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이에 문제제기하는데 8여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전반을 아래로부터 흔들었다.

이후, 여성들의 피해 사실 폭로는 문화예술계, 영화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체육계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간 사소한 일,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음을 자각하고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피해자에서 생존자, 증언자, 다른 피해자들의 지지자로 변화했다. 이들은 ‘여성문제’로 여겨졌던 일들이 사실은 ‘남성문제’임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자격을 묻던 이들에게 가해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14) 2000년대 여성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호주제 폐지다(2005년). 호주제가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차별적 제도로 인식되는데 무려 반백년이 걸린 셈이다.

---

선/악,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라는 개념에 ‘여전히’ 젠더 관점과 성평등이 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외쳤다.

이후 여성운동은 #불법촬영·편파수사 반대 시위(소위, 혜화역 시위), #반성착취, #낙태죄폐지, #스쿨미투, #탈코르셋, #4B(비연애, 비섹스, 비혼인, 비출산) 운동 등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이끌며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왔다. 페미니즘 도서의 폭발적 성장과 판매, 페미니즘 수업과 강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산 또한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여성들은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근본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성차별적 관계와 관습적 문화, 관용되거나 장려되어 왔던 행동들, 이를 배태한 구조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여성들의 집합적 움직임은 대한민국 여성해방 운동사에 또 다른 커다란 해일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고 ‘잡음’과 갈등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차별에 대한 저항을 ‘남녀 갈등’ 혹은 ‘남성혐오’라고 진단하며, 예민한 일부 여성들의 문제, 심지어 ‘과격함’ 페미니스트들의 예외적 상황이라 여기는 사람들 또한 상당하다. 페미니스트 내부에도 다양한 지향과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성이 하나가 아니듯 여성 또한 단일 집단이 아니다. 사회학자들의 이론적 준거가 다양하듯, 페미니스트 또한 각자가 터한 출발점이 다르니 일견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필자는 포괄적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난 백여 년 이상의 세월 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리라 믿는다. 한국의 독립운동사, 민주화운동사와 깊숙한 관계를 맺으며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왔으며, ‘여성 이슈’들을 독자적으로 제기하고 독립적 단체를 만들며 진격해 온 여성들이 우리 앞에 있다.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뚫고, 진퇴를 거듭하며 쌓아 온 선배들의 역량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이 남긴 유제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에너지와 결합될 때, 각종 차별과 착취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귀 기울이며 근본적 토대 구조의 변혁을 지향해 온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가치가 널리 공명될 것이다. 2020년 지금, 여성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환기하는 이유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 일상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다.

#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3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